

---

## 2020년 중국 원양산업 이행백서

---

중국 원양산업 관리원칙과 입장, 정책조치와 이행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농촌부는 최초로 중국 원양어업이행백서를 공개한다. 이행백서는 중국의 기국 의무 이행, 항만국과 시장국가로서의 의무, 원양산업 관리조치, 어업자원의 과학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제도규정과 조치방법 및 이행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 전 세계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의 과학적 지원, 국제협력, 기초시설의 건설 등을 소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20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 서 언

1985년 자국 원양어업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은 관련 양자 어업협정과 그 계획에 따라 국가 관할 협력해역에서 호혜평등의 입어 협력을 전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등 관련 국제법에 근거하여 공해어업을 시작하였고 공해 어업자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자원보존을 위한 관리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였다. 2019년까지 중국의 합법적인 원양어업 기업은 178개인 것으로 집계되며 허가된 원양어업 선박은 총 2701척이다. 그 중 공해조업 선박은 1589척으로 조업해역은 각각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공해와 남극 해역 및 기타 협력 국가들의 관리해역이다.

중국 원양산업은 친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왔으며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 전세계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선대규모의 엄격한 통제, 규범 관리 강화, 불법조업 단속, 효익 극대화, 장비 개량, 합리적 배치, 관리 규범화를 통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중국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대부분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 가입하였다. 상술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중국은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아직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일부 공해에서도 기국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 즉, 국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수요를 보장하고 중국 원양산업이 국제 어업관리 체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중국의 원양산업 관리원칙과 입장, 정책조치와 그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백서를 공개한다. 본 백서는 중국의 기국 의무 이행, 항만국과 시장국가로서의 의무, 원양산업관리조치, 어업자원의 과학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각 제도규정과 조치방법을 밝히고 이행성과를 높이고 글로벌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지원, 국제협력, 기초설비와 능력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 一. 기국 의무의 전면적 이행

### 1. 원양어업 허가증 제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증 제도와 원양어선 등록·검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3년 원양어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20년 4월 전면적으로 개정한 후 그에 따라 공포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양어업의 전면적인 관리제도 및 관리조치를 만들었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현재 모든 중국 원양어선은 등록, 검증, 조업허가증 취득, 허가의 과정을 거친 후에 조업이 가능하다. 동시에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요청에 따라 관련 해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투자 및 산출통제제도 시행

중국은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 시행기간, 원양어업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 원칙에 따라 원양기업 및 원양어선 신규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원양어선 총량을 3000척 이내로 통제하였다. 또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업어선 관련 척 수와 중량제한제도, 어종에 따른 할당량 제도, 금어구역, 금어기 등의 어업자원 보존관리조치를 엄격히 시행하였다.

### 3. 원양어업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시스템

중국은 원양어업 기본생산 통계시스템과 관련 데이터 수집보고를 고도로 중시하여 원양어업 기업과 원양어선의 정보, 선위관측, 조업일지, 전재, 국가 읍저버, 정보선, 시범항만선정, 과학조사 및 자원탐사를 포괄하는 범위의 전방위적인 원양어업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각 어업데이터를 보고하여 어업 데이터 수집과 보고업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

### 4. 어로일지 작성제도의 보급 및 개선

원양어선 어로일지는 과학 데이터 수집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2008년 농업부판공청이 하달한 ‘다랑어 어업 어로일지 규범에 관한 통지’에서 어로일지 작성업무를 규범화 하였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요구에 따라 어로데이터와 보고를 제출하여 분석업무에도 참여하였다. 공해오징어, 위망, 저인망 등 기타 어종, 어구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어로일지 작성을 확대하였다. 현재 원양어업기업 어로일지 보고율은 100%에 달하며 보고의 양도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전자 어로일지 작성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보고 효율도 향상시켰다.

### 5. 국가 읍저버 제도의 추진 및 개선

각 배에 읍저버를 파견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인 어업데이터 수집의 한 방식이다. 2001년부터 중국은 국가 읍저버를 파견하였다. 2016년 농업부(지금의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업 국가 읍저버 관리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국가 읍저버 파견 업무를 규범화·제도화·질서화 하였으며 중국 원양어업 국가 읍저버 파견업무는 안정적화 단계로 들어섰다. 현재 중국 원양어업계의 국가 읍저버 파견 수와 그 범위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 6. 공해 휴어기의 자주적·주동적 시행

공해 어업자원의 보존과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서남대서양과 동태평양 공해 관련 해역에서 각각 3개월을 기한으로 오징어 어업 휴업기를 설정하여 자주적으로 시행하였다. 관련 요구에 따라 오징어가 주 조업대상인 중국국적 원양어선은 휴업기 기간, 해당 조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 동시에 오징어 자원 동향 모니터링, 국가 읍저버 파견, 전자 어로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해 오징어 자원보존과 관리의 과학적 규범화 조치를 점차적으로 시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해오징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다.

## 7. 이행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최근 인도양참치위원회,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중국의 원양어업 관련 조치 이행성과는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기타 공해 조업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조치이행 수준은 매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의 국제 협약 이행과 법에 근거한 생산력을 확실히 제고시키기 위해 원양어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2019년 농업농촌부 판공청은 <원양어업사업 이행평가 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원양기업과 그 어선의 연도별 이행 상황에 대해 계량적인 평가를 진행하였고 이행평가 성과를 상별 수여정책의 근거로 삼았다.

# 二. 원양어업 감독의 엄격한 시행

## 1. 원양어업 선위 감독관리 강화

원양어업 관리를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합법적인 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2006년부터 원양어선 선위 감독관리를 시행하여 2014년 공식적으로 <원양어선 선위 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 개정 후 재시행하였다. 요구에 따라 중국은 원양어업선박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선위추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원양어선이 운항선박 위치추적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용하도록 하였다. 매 1시간 마다 자동으로 선위가 보고되는데 이는 4시간에 한 번 보고하는 국제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원양어선이 해양경계를 넘을 시에는 예보와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선이 잘못된 해역으로 진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 관할해역에 들어가는 일을 엄격하게 방지하고자 하였다.

## 2. 공해 어획물 전제 감독

중국은 합법적인 어획물 전제 관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감독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원양어선의 합리적인 조업 수요를 만족시켰다. 2020년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업 공해 전제관리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전면적인 공해 전제 감독제도를 만들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국 원양어선 전제는 사전 신청 및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원양어선에 어획물 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선은 읍저버가 동선하거나 영상관리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규정한 것이며 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 3. 공해 승선검색 실시 추진

중국은 관련 국제법의 틀에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인 공해 승선 검색 실시를 지원하였다. 2020년 중국은 북태평양 어업위원회에 승선검색 시행선박을 등록하여 정식으로 북태평양 공해에서 승선검색 업무를 진행하였다. 즉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북태평양 해역 공해내의 제도 시행에 도움을 주었다. 동시에 절차에 따라 기타 지역수산물기구에 승선검색 시행선을 파견하여 국제사회가 공해상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참여하였다.

## 4. 원양어선 항만 검색제도 구축

중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어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항구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하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항만국조치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점진적으로 항구 검사 능력을 제고시켜왔다. 상술한 협정 가입 전, 개별 안전부터 시작하여 항만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왔다. 2016년 중국은 CCAMLR에 협조하여 국내 항구에서 남극 이빨고기 어획물을 불법적으로 전제한 한 척의 외국 선박을 성공적으로 압류처리하였다. 2018년부터 관련 지역수산물기구 IUU 선박 명단에 등록된 중국 어선을 각 항구에 하달하여 해당 어선들이 항구로 진입하거나 하선, 보급, 연료 조달 등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5. 원양어업 생산물 수출입 관리제도의 시행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중국은 엄격한 수산물 수출입 관리 감독 제도를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시장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눈다랑어, 황새치, 남방참다랑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대해 수입 검사 모니터링과 수출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한국, 칠레 등 수입국(지역)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출상품에 합법적인 인증제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대조 검증을 진행하여 피드백후 어획물 수출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을 맺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부 러시아산 상품에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조업 어획물이 중국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여 중국 시장유통 상품 원산지 합법성을 확보하였다.

## 6.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중국은 국제사회가 각종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것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였다. 중국의 ‘원양어업관리규정’에 원양기업과 원양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IUU어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국가와 국제조직 등에 중국 어선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절대 용인하지 않는 태도로 원양기업과 원양어선이 한 위규행위에 대해 성실히 조사하여 벌금, 어선조업금지, 기업 자격의 취소 및 중지, 위규 어선 선장과 관리인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엄격한 처벌 조치를 하여 원양어업의 질서 있는 규범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三.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 1.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자원이용 원칙 주장

중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발전의 길을 걸어왔으며 어업자원의 보존과 개발 이용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과학적인 평가에 기초해 지속가능하고 장기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조업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속에 운용하도록 하였다. 할당량과 조업역량의 합리적인 전환을 지지·주장하여 조업역량 총량을 통제하였다. 지역어업관리조직의 조업 제한제도와 자원회복 계획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부수어획어종 및 생태계시스템의 보호조치를 준수하였다.

## 2. 생태 및 환경의 우호 조업 지원

중국은 환경과 생태에 적합한 어구와 조업 방식을 연구개발하여 보급운용하고 있다. 어구의 선택성을 최적화하여 희귀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국제조식에서 통과된 쓰레기 오염물질 배출규정과 관련된 규정을 준행하여 조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켰다. 또한 공해에서 대형 유자망을 사용하여 조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RFMO의 관련 요청에 따라 중국 과학연구기관 및 기업은 남극 크릴새우 저인망선에서 부수 어획한 해양 포유동물을 방생하는 시험을 하였다. 다랑어 위망어선에서는 생태형 인공어장 설비사용을 시범실시하였고 다랑어 연승어선에서는 생태형 채낚기 장비사용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상어, 바다거북이, 바다새 등의 해양동물을 어획하거나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어구와 조업방식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 이에 따라 다랑어 연승채낚기 어선은 RFMO의 요청에 근거해 릴리스 혹은 설치, 바다거북이 방생 및 보호장비를 갖추었다.

## 3. 생태계기반 어업관리를 중시한다.

생태계기반 어업관리는 국제 어업관리를 응용한 모델이다. 중국은 생태계를 기반으로한(EBFM)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중시하며 EBFM이론과 방법의 연구 및 실천을 지지한다. 목표어종 조업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태관련종의 지속가능한 문제를 고려하고 조업어종 자원상태 평가 및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상어, 바다거북이, 바다새, 쥐가오리, 포유동물들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해양 조업어획물에 대한 최대한의 이용을 강조하며 부속어획물을 충분히 이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농촌부는 다랑어 어업관리 문헌에 연승선은 부속어획물로 어획된 상어에 대해서 지느러미를 빼내면 안되며 충분히 이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금지어종은 예외로 한다.)

## 4. 기후변화와 어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시종일관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어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를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 조기경보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2019년 중서태평양 어업위원회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연구 제안을 지지하며 회유성어류, 관련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의 경제 및 양식 안보에

기후변화가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의제로 추가하였다. 중국은 기후변화와 어업자원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계 협력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

#### 四. 원양어업의 과학적인 기반을 강화하다.

##### 1. 과학기술과 관리의 지원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다.

중국은 원양어업의 과학 및 관리 기반 시스템의 건설을 강화해왔다. 원양어업 국제이행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과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지역 어업관리조직 규약 이행에 있어서 질과 그 역량을 제고시켰다. 또한 어업 주관부서, 원양어업협회, 과학연구 부서를 설립하여 협력의 관리와 이행지원시스템을 통합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자원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다.

공해 어업자원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 종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업어선과 과학조사 어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어업 관련 데이터와 샘플을 수집하였고 공해 어업자원의 장기모니터링 조사를 전개하여 조업대상과 생태계 관련 종의 변화를 연구하고 자원을 추적모니터링 하였다. 동시에 관련 협력국가의 요구에 따라 입어국과 공조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조사를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연구를 전개하였다.

##### 3. 자원의 보호관리연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중국은 자원평가와 과학적인 최적의 정보를 보호관리, 관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과학연구원이 지역 어업관리조직의 연구활동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자원평가에 역점을 두고 어류 개체군 생물학과 서식지, 생태계에 기반한 어업관리, 휴업기 성과 평가, 전자 관리감독 및 전자 조업일지 연구 개발 및 시범 등 연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 연구원이 RFMO과학 업무팀, 과학 위원회 의장, 부의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과학자의 전문적인 수준과 그 공헌 역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 4. 과학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공유한다.

중국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연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데이터가 정책결정중에 최대한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 안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각 지역 어업관리조직의 관련 과학자들과 함께 읍저버의 데이터 수집, 조업 데이터 등의 과학적인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고 과학 연구를 강화하여 어업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하는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五. 기반시설과 역량 구축

### 1. 어선 개조 지원과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 장비 응용 확대

중국은 원양어선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어선으로의 개조를 장려하며 안전, 고효율, 에너지 절약, 배출감소의 어선용 장비와 기술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과도하게 원양어선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업활동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 2. 원양어업 정보시스템 건설을 통한 정보화 관리 강화

원양어업 정보화 건설을 중시 및 강화하고자 하며 원양어업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원양어업 사업의 통일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원양어업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결합해 선위 모니터링 시스템과 어선 월경 예보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 원양어업 데이터 센터 통계를 설립하여 생산통계보고, 조업일지 데이터, 읍저버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였다.

### 3. 이행기술 개발을 통한 어업종사자들의 이행능력 제고

여러 방법과 형식을 통해 원양어업 선원, 관리자의 규정 이행 수준과 기술을 높였다. 농업농촌부 원양어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원양기업과 원양산업 종사자 교육, 원양어업 직업 경영자 국제 어업자원 보호 및 관리 지식 교육 등 원양어업 관리자의 이행능력 향상을 촉진시켰다. 또한 과학연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원양어업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였다.

### 4. 해상 안전생산 강화와 국제 원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선적, 해안기지 통신장비 수준 향상을 통해 해상 상호구호보장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어선 생산과 선원안전을 보장하였다. 또한 관련 국가와 조직이 협

력하여 글로벌 해상구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국 원양어선은 최근 몇 년간 페루, 모리셔스 등 국가 어선 및 어민들과 협력을 진행하였고 생명우선의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3월 5일 “중웨이 702” 선은 태평양 도서국인 솔로몬 제도 해역에서 해상에서 20여일을 표류한 3명의 현지 어민을 구조하였다. 구조를 받은 어민과 솔로몬정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六. 원양어업 국제협력 강화

### 1. 양자협력 교류 전개

중국정부는 관련 국가(혹은 지역)와 대화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해 어업자원의 보호, 지역 어업관리, IUU 단속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하였다. 중국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유럽연합 등 국가와 양자 어업회담 혹은 교류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발전과 어업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어업자원국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아프리카, 남태평양, 남아메리카, 아시아 관련 국가들과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을 통해 현지의 취업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상호 이익을 실현하였다. 2019년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가 농어업장관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나디선언’을 체결하여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을 추진하였다.

### 2. 다자협력교류를 강화하다.

중국은 국제연합,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다자 어업사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멸종야생동식물 국제무역협약, 세계무역기구 등 관련 국제조직과 어업과 관련된 사무교류를 전개하여 전면적으로 관련 어업 관리조직의 사무에 참여하였다.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FAO세계 어선 명단에 등록하여 국제 해양사무조직(IMO)과의 협력을 강화하였고 원양어선이 IMO번호(일부 조업 어선은 강제하여 신청)를 신청 및 등록하도록 장려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은 관련 비정부 기구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진행하였다.

### 3. 국제 및 지역 어업 거버넌스 매커니즘 참여

중국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국제 및 지역 어업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해 주요 어업 자원의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 공해 오징어, 다랑어 등 자원 보호와 관리 연구를 추진하였고 부속어획 자원의 평가와 대양성 포유동물 보호연구, 지속가능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업무도 함께 전개하였다.

#### 4. 개발도상국 어업발전 지원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왔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 작은 면적의 도서 국가와 낙후된 국가의 어업 및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 인재, 자금 등의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RFMO가 자원보존과 관리 조치를 제정할 때 개발중인 도서국가와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과 실질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제정할 것을 지지하였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해양운명공동체’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입어와 권리 대여 등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어업 사회간접시설 건설, 자원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업발전과 취업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 결 어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 보면 중국의 원양어업 발전과 국제 규약 이행 성과는 매우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양어업 선대장비와 관리 수준은 대폭 향상되었고 선단 규모와 조업 능력도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어선과 어획물 감독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행 데이터 수집, 정보보고 체계도 초보적인 진전을 거두었다. 이행 능력과 국제 어업연구 및 관리참여도 강화되고 있으며 가입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전반적인 이행 성과도 상위권에 속해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의 관리통제제도 혁신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며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과 중국이 가입한 지역성 어업 조약 등 제반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보존관리조치 준수, 선대규모 통제, IUU어업 단속, 어업행위 규범화를 통해 어업의 질적 발전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혁신, 협력,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이념을 유지하여 해양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다·양자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해양 어업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업자원의 과학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책임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연합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의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원양어업 발전 실천과 융합시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배 포	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작 성	중국어 전문관
출 처	<a href="http://www.moa.gov.cn/xw/bmdt/202011/t20201120_6356632.htm">http://www.moa.gov.cn/xw/bmdt/202011/t20201120_6356632.htm</a> <a href="http://www.zjagri.gov.cn/art/2020/11/24/art_1630653_58926220.html">http://www.zjagri.gov.cn/art/2020/11/24/art_1630653_58926220.html</a>